

# 대학생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연구: 지역학(천안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심재권\*\*

황정희\*\*\*

## 국문요약

오늘날 지역이 삶의 장으로 등장하고 경제, 문화, 사회 활동의 주요단위로서 인식되면서 해당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및 확립은 지역발전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지역학이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학(천안학)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신지역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지역학 수강과 관련하여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정보습득정도, 정체성의 수준은 높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출신지역의 거주기간이 대체로 오래될수록 지역에 대한 모든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농촌중심도시를 제외하고 도시규모가 클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았다. 지역정체성의 경우에는 농촌중심도시가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정체성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정체성에 지역학 수업 만족도, 출신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정보습득정도가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학과 지역정체성과의 관계를 다룬 초기 연구로서 지역학의 역할을 지역정체성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지역정체성, 지역학, 지역 만족도, 천안학

## I. 서론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흐름 속에서,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정체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추구할 때 비로소 지역이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 지역이 독립적인 삶의 장으로서의 등장은 각 지역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요청하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지역학이다. 지역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 사회가 보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

\* 이 논문은 2014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서의 대도시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은 점점 더 열악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위한 기초로서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특성과 현재적 상황, 그리고 지역이 지향하는 발전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화라는 시대 변화에 맞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동시에 중앙으로의 집중화에 따른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문제를 지역이 주체가 되어 바꾸어 나가려는 인식과 문제해결의식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로 지역학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지리, 환경, 생활 등 모든 분야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역의식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발전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각 지역마다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을 연구하는 모임들이 결성되었고,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면서 1990년대에 와서 지역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김영일, 2012).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역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성격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지역정체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들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이 경제, 문화, 사회 활동의 주요단위로 인식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기탁, 2011).

지역정체성은 한 지역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이며, 그 지역 주민이라는 집단성에 대한 주관적인 감각과 집단 경계가 지속하는 것으로, 그 지역의 고유한 자질이라 할 수 있다(윤순갑·김명하, 2007). 지역정체성의 관심이 증가한 배경에는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이주 및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오던 지역의 정체성이 약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도시 지역 간의 개발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들 수 있다(임병조, 2009).

그동안 지역의식 고취를 위해 타 지역과 구별되는 해당 지역에 대한 특성이 많이 연구되고 지역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지만, 주로 개념적 논의(Hughey & Bardo, 1984; Bulmer, 1985; Puddifoot, 1995; 김주원, 2003; 임병조, 2009)나 지역민의 정체성 수준 파악(이윤희, 2002), 지역정체성에 대한 인식(Puddifoot, 2003), 지역주민특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체성 연구(최병목, 1999; 유팔무, 2000; 윤순갑·김명하, 2007)등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이론적 차원에서 연구가 대다수이고,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나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근래에 지역의 정체성 수준 파악, 지역적 특성과 지역정체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이영원, 2010)가 있을 뿐이다.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지역학 강좌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강생들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나 관심, 자부심 등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학으로서 천안학은 국내에서 최초로 2009년부터 천안 지역에 소재하는 7개 대학에서 정규 교양과목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다. 지역학 강좌가 수강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역사, 행정, 경제, 사회, 문화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

에서, 수강생들의 지역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지역학 강좌와 지역정체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학(천안학)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신지역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지역학 수강과 관련하여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대학생들의 출신지역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정보습득정도, 지역정체성 수준을 파악하고, 둘째, 대학생들의 출신지역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정보습득정도, 지역정체성 수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지역정체성 개념과 형성요인

세계화에 따른 보편화, 표준화 물결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지역 간 물자유통의 증대 등으로 지역적 특성을 약화시킨 반면에, 지역의 차별성에 대한 갈증을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문화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지역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공간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의 문화나 상징을 활용하여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김용웅 외, 2003; 이정훈, 2008).

일반적으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살아가면서 주민들에게 내면화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를 특정지역 사람, 즉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으로 만든다(정근식, 1997). 이처럼 어느 사회에서나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갖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역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유사하며, 지역경제나 지역정치의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도 유사하며,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지역문화를 공유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 공간적 관계 안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존재 의미나 의식, 즉 '정체성(community identity)'을 갖는다(김기탁, 2011).

이러한 지역정체성은 사회정체성이론(Tajfel & Turner, 1979)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정체성이론은 개인이 독특한 인물로서의 개인정체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여러 집단의 구성원임을 반영하는 사회정체성도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그에 의하면 개인은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그의 정체성을 찾으며, 정체성의 발현은 ‘우리’와 ‘저들’을 구별하는데서 나타난다(Tajfel & Turner, 1979). 이러한 구별 속에서 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에는 동질성이 나타나게 되고 집단 외의 사람들과는 차이점을 강조하게 된다. 이처럼 정체성의 개념은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특징인 동일성이라는 측면과 다른 개체와 구별되는 특성인 개별성의 측면을 갖는다(김주원, 2003). 동일성은 그 지역의 특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지역에 대한 귀속감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개별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자신의 지역 나름의 고유성과 특이성, 우

월성을 가지며 타 집단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유병린·황기원, 1992). 이는 사람들이 자기 집단을 타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고 사회를 범주화하는 전제가 된다.

개인의 정체성은 그 개인이 태어나고 삶을 영위해 가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지역정체성으로 나타난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제반 정치·경제·문화적 특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거나(정근식, 1997), 개인이 속한 지역에 부여하는 가치와 지역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자부심, 지역에 자신을 포함하거나 자신을 지역 구성원으로 정의내리는 것(Ellemers et al., 1999) 또한 지역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정체성은 자신의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구별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지역범주화)이며, 지역의 특성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지역동일시), 지역에 기반을 둔 자부심과 자아존중감(지역자존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정체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며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자원, 경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정체성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내용들이 결합되고 없어지고 변화되며 재조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고 있다(윤순갑·김명하, 2007). 또한 지역정체성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지역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영원, 2010). 최근 들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역주의의 강화로 지방정부는 지역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정체성 확립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역’이 경제, 문화, 사회 활동의 주요단위로 인식되면서 지역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기탁, 2011). 그동안 도시를 포함한 지역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요인과 관련하여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었는데(허중욱, 2011), 일반적으로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역사, 경관, 문화, 역사적 인물, 관광, 지역축제, 지역신문, 대중매체, 지역개발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대중매체, 교육기관, 공공시설, 각종 민간단체, 정치·경제·행정·법률 등과 관련된 기구(Crocker & Quinn, 2004), 경제, 행정, 언어, 매체, 문화, 권력관계 등의 다양한 제도적 요소들(이영민, 1999), 기록문학 또는 구비문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 영화, 광고 등(허중욱, 2011), 지역축제(임병조, 2009), 민속문화, 유적, 문화유적, 문화축제 등의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유산(Woodward, 2002), 랜드마크 등의 지역 이미지(Campion & Fine, 1998)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체성 구조를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 문화, 경관, 산업, 인성 등 다양한 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은 형식적으로 하나의 지역 범위로 묶이고 이 특성들을 주민들이 ‘지역의 특성’으로 받아들일 때 지역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표 1〉 지역정체성 확립 분야의 내용

분야	구체적 세부 내용
역사정체성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 역사 현장, 유적, 민주화 운동
문화정체성	문화,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무용, 음식, 민속, 축제, 복장
경관정체성	미관, 자연경관, 도심경관, 건축물, 구조물, 환경운동, 체험과 이미지
산업정체성	관광, 수공업, 첨단산업, 농산물, 제3차 산업
인성정체성	주객이 인식하는 개성, 집단성

자료: 허중욱(2011)이 계기석·천현숙(2001)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성정체성을 보완적으로 적용함.

## 2. 지역학의 개념과 국내 지역학 현황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움직임으로 도래한 지역화 시대의 추세는 이전의 중앙집권적 정치·경제·사회·문화의 틀을 크게 변화시키고, 각 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여 다양한 지역학을 활성화시켰다(허남욱, 2011). 특히 90년대 이후 각 지역이 고유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와 국가발전과 구별되는 지역 나름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세계화 및 지역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흐름은 국제지역에 대한 외향적 연구와 국가 내 지역에 대한 내향적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전자는 대학과 기업을 비롯한 공식 영역에 의해 주도된 국제 지역학으로 미국학, 중국학, 일본학, 유럽학, 동남아시아학 등을 일컫는다. 후자는 향토 사학자, 지역의 대학교수나 지역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국내의 서울학, 인천학, 부산학, 울산학, 제주학 등을 일컫는다(심재권·김선명, 2014).

지역학(地域學, Area Studies)은 국내 지역사회의 언어, 문학, 역사, 사회, 정치,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지역학은 194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생겨나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에서 행정단위에 학(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서울학연구소’가 생기면서 ‘서울학’이란 명칭을 사용한 데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힘입어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지역학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역학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 및 국가와 구별되는 독자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지역 사람들의 삶의 향상과 이를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학문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학은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초로 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목적적, 실천적 학문이라 할 수 있다(김영일, 2012).

국내 지역학은 대체적으로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및 논문집 발간 등 연구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대학에서 지역학 관련 강좌를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학으로는 천안학이 있다. 천안은 급격한 도시화와 지역 내 12개의 대학이 있는 대표적인 대학도시로서 학업을 목적으로 많은 외지 학생들이 유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학은 천안 거주 주민의 애향심 및 지역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천안의 미래를 위한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천안학은 대학 강좌를 통해 일반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발하고자 2009년부터 천안 지역 주요 대학에 매학기 천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천안 지역의 7개 대학에서 1, 2학기 교양과목으로 개설, 운영되고 있는데, 매학기 강좌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천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자신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는 등 강좌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 3. 지역학과 지역정체성과의 관계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존재이며(Taylor & Spencer, 2004),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Baldwin, 2004). 또한 오늘날의 지역은 객관적 실체로 존재한다라기 보다는 구성원이나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향토연구단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전문학술연구단체, 지역언론, 교육기관 등의 관련 주체들에 의해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들은 집단적 사고 체계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지역의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며, 이를 통하여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이들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정체성의 형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고 있으며(임병조, 2009), 지역 사람들의 지역과 관련이 있는 신념, 가치, 이데올로기 등의 지역정체성이 확립되고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역 구성원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학 강좌이다. 지역학 강좌는 언론매체와 같은 사회 대중적 채널로 기능할 수는 없지만, 해당 강좌 수강생들에게 지역사회의 역사, 행정, 경제, 사회, 문화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정체성은 지리적 구분과 지역적 특성, 지역 내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구성된다(Puddifoot, 1995). Buckner(1988)에 의하면 지역사회의 응집 성향은 지역민의 지역성,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지역민이 지역적 특성을 소유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으며, 이에 따라 지역적 응집력이 높아진다. 이처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역 구성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지역학 강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정체성 형성에 있어 지역학 강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지역학과 지역정체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지역학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관계를 고찰하였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출신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정보습득정도, 정체성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에 대한 인식 및 지역학 수강과 지역정체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천안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천안학 수강생 대부분이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출신지역은 ‘자신이 태어나거나 주로 성장한 곳’으로 정의하였다.

#####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정보습득정도 및 지역정체성 수준

과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천안학이 개설되어 있는 천안 지역에 소재하는 7개 대학(B대학교, D대학교, 두 개의 N대학교, S대학교, 두 개의 H대학교)에서 2013년 2학기 천안학을 수강하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2월에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총 102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회수율 97.6%), 응답률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 996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출신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를 일부 달리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 (1) 출신지역에 대한 인식 측정도구

출신지역에 대한 인식 중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는 각각 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출신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와 관심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출신지역의 역사·전통·문화유산, 인명인물, 자연환경, 산업·경제·정치·행정, 문화, 축제, 토속음식, 교육의 8개 항목에 대한 각각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물었다. 출신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도는 ‘거주지로서 적용하기 좋다’,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다’ 등의 9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출신지역 정보습득정도와 지역정체성 수준에 대한 측정은 지역정체성 영향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 (2) 지역정체성 영향요인 측정 도구

Buckner(1988)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높으며, 이에 따라 지역적 응집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지역정체성과 지역 만족도 간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Hughey & Bardo, 1984; 이영원, 2010).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지역 구성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대중매체, 교육기관, 공공시설, 각종 민간단체, 정치·경제·행정·법률·언어·문화 등을 통해 얻게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지역 구성원들을 사회화시키며, 이를 통하여 지역정체성을 구성하거나 강화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임병조, 2009). 지역학 수강생들에게 제공된 지역사회의 역사, 행정, 경제, 사회, 문화적 정보는 수강생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 뿐만 아니라 지역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만족, 정보습득정도를 높일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 관심, 만족, 정보습득이 높은 지역정체성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 이해도, 지역 관심도, 지역 만

족도, 천안학 만족도, 지역 정보습득정도를 고려하였다. 각 변수들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① 지역정체성

대학생들의 지역정체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군석(2003)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지역사회정체성 척도로 사용하였다. 그는 척도를 ‘집단지존심’, ‘집단동일시’, ‘집단범주화’라는 세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하였고, 각각 7문항, 6문항, 7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집단지존심, 집단동일시, 집단범주화 대신 지역자존감, 지역동일시, 지역범주화로 명명하였다. 지역자존감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출신지역) 사람임을 스스로 내세운다’ ‘나는 내가 (출신지역)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해 삶의 의미를 더 느끼게 된다’ 등의 7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지역동일시는 ‘나는 나 자신을 (출신지역) 사람들과 동일시한다’, ‘(출신지역) 사람들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처럼 느껴진다’ 등의 6개 문항으로 하였으며, 지역범주화는 ‘누가 (출신지역)을 비판하면 나에게 대한 개인적 모욕처럼 느껴진다’,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출신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 등의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② 천안학 수업 만족도

천안학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나는 천안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천안학의 강사에 대해 만족한다’ 등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③ 출신지역 이해도

출신지역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정도는 자신의 출신지역의 역사·전통·문화유산, 인명인물, 자연환경, 산업·경제·정치·행정, 문화, 축제, 토속음식, 교육 등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④ 출신지역 관심도

출신지역에 대해 관심이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나의 출신지역에 대해 관심이 많다’, ‘나는 나의 출신지역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등의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 ⑤ 출신지역 만족도

출신지역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영원(2010)이 사용한 항목 중 ‘나의 출신 지역은 거주지로서 적응하기 좋다’, ‘나의 출신 지역은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다’ 등의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⑥ 출신지역의 정보 습득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지역신문, 뉴스 등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각종 민간단체 등에서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적이 있다’ 등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자료 분석방



법으로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 변수의 정도는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분석을 하였으며,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정도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 way-ANOVA) 방법을 사용하고 Scheffé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는 남학생 445명(44.7%)과 여학생 551명(55.3%)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 350명(35.1%), 2학년 301명(30.2%), 3학년 187명(18.8%), 4학년 158명(15.9%)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응답한 출신지역의 도시규모<sup>1)</sup>는 농촌중심도시 7명(0.7%), 중소도시 257명(26.9%), 대도시 323명(33.8%), 거대도시 198명(20.7%), 초거대도시 171명(17.9%)이었다. 출신지역에의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278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15~20년 미만 214명(21.5%), 10~15년 미만 187명(18.8%)과 5~10년 미만 165명(16.6%), 5년 미만 152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45	44.7	도시 규모	농촌중심도시	7	.7
	여성	551	55.3		중소도시	257	26.9
	합계	996	100.0		대도시	323	33.8
학년	1학년	350	35.1		거대도시	198	20.7
	2학년	301	30.2		초거대도시	171	17.9
	3학년	187	18.8		합계	956	100.0
	4학년	158	15.9	출신지역 거주기간	5년 미만	152	15.3
	합계	996	100.0		5~10년 미만	165	16.6
학교	N1대	158	15.9		10~15년 미만	187	18.8
	N2대	172	17.3		15~20년 미만	214	21.5
	D대	114	11.4		20년 이상	278	27.9
	B대	141	14.2		합계	996	100.0
	S대	174	17.5				
	H1대	114	11.4				
	H2대	123	12.3				
	합계	996	100.0				

1) 도시규모는 인구규모에 따라 농촌중심도시는 인구 5만 내외의 읍 규모를, 중소도시는 인구 5만~50만 정도의 규모를 가진 도시를, 대도시는 인구 50만~100만 정도의 규모 도시를, 거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규모 도시를, 초거대도시는 1000만 이상의 규모 도시로 구분하였다.

## 2.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지역정체성의 하위요인 측정문항에 대한 Cronbach's  $\alpha$ 를 통한 신뢰도분석의 결과, 모두 0.8 이상이어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성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고유값(eigen value) 1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였으며, varimax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적재치가 0.4이상인 측정항목만을 대상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해당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묶인 항목인 지역자존감 1번 문항과 지역범주화 14번 문항 등 총 2문항을 제거하여 총 1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요인은 모두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요인을 설명하는 총 분산설명력은 67.99%로 나왔다.

〈표 3〉 지역정체성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변수명	문항	1	2	3	Cronbach's $\alpha$
지역자존감	설문 17-1	.813	.065	.212	.913
	설문 17-2	.795	.274	.249	
	설문 17-3	.804	.247	.270	
	설문 17-4	.736	.365	.265	
	설문 17-5	.689	.333	.158	
	설문 17-6	.639	.423	.267	
지역동일시	설문 17-8	.428	.586	.279	.919
	설문 17-9	.232	.809	.240	
	설문 17-10	.372	.684	.368	
	설문 17-11	.246	.705	.337	
	설문 17-12	.257	.699	.322	
	설문 17-13	.247	.677	.366	
지역범주화	설문 17-15	.231	.430	.675	.882
	설문 17-16	.218	.362	.736	
	설문 17-17	.164	.376	.738	
	설문 17-18	.202	.366	.760	
	설문 17-19	.282	.199	.586	
	설문 17-20	.287	.113	.661	
고유치		4.254	4.115	3.869	
분산(%)		23.636	22.862	21.495	
누적(%)		23.636	46.498	67.993	

지역정체성의 하위요인 측정문항에 대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해당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묶이거나 요인부하량이 0.4미만인 항목인 출신지역 만족도 9번 문항과 출신지역 정보습득 1번 문항, 총 2문항이 제거되었다. 요인은 모두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요인을 설명하는 총 분산설명력은 66.18%로 나왔다.

〈표 4〉 지역정체성 영향 요인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변수명	문항	1	2	3	4	5	Cronbach's $\alpha$
천안학 만족도	설문 10-1	.139	.069	.858	.083	.050	.928
	설문 10-2	.135	.048	.859	.083	.062	
	설문 10-3	.116	.050	.849	.174	.077	
	설문 10-4	.172	.006	.782	.074	.086	
	설문 10-5	.143	.043	.860	.106	.084	
	설문 10-6	.096	.037	.812	.122	.015	
출신지역 이해도	설문 16-1	.110	.837	.048	.037	.088	.918
	설문 16-2	.042	.747	.018	.156	.157	
	설문 16-3	.084	.826	.021	.083	.087	
	설문 16-4	.145	.766	.008	.190	.057	
	설문 16-6	.072	.806	.072	-.007	.104	
	설문 16-7	.072	.727	.089	.052	.159	
출신지역 관심도	설문 17-21	.291	.170	.173	.765	.148	.871
	설문 17-22	.256	.201	.170	.760	.227	
	설문 17-23	.243	.182	.140	.781	.143	
	설문 17-24	.278	.117	.222	.666	.148	
출신지역 만족도	설문 19-1	.765	.135	.172	.102	.034	.910
	설문 19-2	.792	.066	.105	.056	.135	
	설문 19-3	.817	.092	.147	.046	.093	
	설문 19-4	.617	.153	.127	.190	.242	
	설문 19-5	.757	.113	.154	.144	.171	
	설문 19-6	.681	.045	.123	.085	.203	
	설문 19-7	.718	.062	.054	.233	-.025	
	설문 19-8	.739	.086	.050	.249	-.010	
출신지역 정보습득	설문 13-2	.123	.142	.048	.162	.672	.745
	설문 13-3	.125	.253	.177	.170	.748	
	설문 13-4	.180	.278	.088	.183	.751	
고유치		5.435	5.231	4.522	2.691	1.975	
분산비(%)		18.118	17.436	15.074	8.971	6.584	
누적분산비(%)		18.118	35.554	50.628	59.600	66.183	

### 3. 출신지역의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정보습득정도, 정체성수준 분석

#### 1) 출신지역에 대한 이해도 분석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표 5), 전반적인 이해도는 평균 3.57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항목별 이해도는 전반적인 이해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출신지역의 역사·전통·문화유산(3.15)과 인명인물(3.13), 산업·경제·정치·행정(3.18) 부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출신지역의 축제(3.39), 자연환경과 문화(3.34)는 알고 있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출신지역에 대한 이해도

내용		평균	표준편차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N=977)		3.57	.802
출신지역에 대한 항목별 이해도 (N=976)	출신지역의 역사·전통·문화유산	3.15	.875
	출신지역의 인명인물	3.13	.901
	출신지역의 자연환경	3.34	.885
	출신지역의 산업·경제·정치·행정	3.18	.890
	출신지역의 문화	3.34	.882
	출신지역의 축제	3.39	.933
	출신지역의 토속음식	3.22	.965
	출신지역의 교육	3.20	.901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성별, 학년, 도시규모,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6), 성별( $F=14.970$ ,  $p=.000$ )과 거주기간( $F=5.932$ ,  $p=.000$ )에 따라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달랐다. 반면 학년( $F=1.198$ ,  $p=.309$ )과 도시규모( $F=.179$ ,  $p=.949$ )별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차이가 없었다. 성별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평균 3.68로 여학생(3.49)보다 높았다.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20년 이상(3.70)이 가장 높았으며, 10~15년 미만(3.63), 15~20년 미만(3.56), 5~10년 미만(3.54)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고, 5년 미만(3.32)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로 출신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별로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 다중비교를 한 결과, 5년 미만과 10~15년 미만, 5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각각  $p<0.05$ ,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출신지역 전반적 이해도 차이

	집단별 평균		F	유의확률	Scheffé
	남성(N=433)	여성(N=544)			
성별	3.68	3.49	14.970***	.000	-

학년	1학년 (N=344)	2학년 (N=297)	3학년 (N=180)	4학년 (N=156)	1.198	.309	-
	3.62	3.52	3.62	3.52			
도시 규모	농촌중심도시 (N=7)	중소도시 (N=253)	대도시 (N=317)	거대도시 (N=195)	.179	.949	-
	3.71	3.55	3.59	3.60			
거주 기간	5년 미만 <sup>a</sup> (N=146)	5~10년미만 <sup>b</sup> (N=163)	10~15년미만 <sup>c</sup> (N=183)	15~20년미만 <sup>d</sup> (N=211)	5.932***	.000	a<c a<e
	3.32	3.54	3.63	3.56			

\*\*\* $p < .001$

## 2) 출신지역에 대한 관심도 분석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표 7), 전반적인 관심도(3.71)는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관심도에 있어 출신지역의 축제(3.9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3.83), 토속음식(3.81), 산업·경제·정치·행정(3.75), 교육(3.74), 자연환경(3.72), 인명인물(3.67), 역사·전통·문화유산(3.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출신지역에 대한 관심도

내용		평균	표준편차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N=977)		3.71	.844
출신지역에 대한 항목별 관심도 (N=976)	출신지역의 역사·전통·문화유산	3.66	.796
	출신지역의 인명인물	3.67	.826
	출신지역의 자연환경	3.72	.783
	출신지역의 산업·경제·정치·행정	3.75	.814
	출신지역의 문화	3.83	.796
	출신지역의 축제	3.90	.822
	출신지역의 토속음식	3.81	.849
	출신지역의 교육	3.74	.841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를 성별, 학년, 도시규모, 거주기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8), 성별( $F=7.986, p=.005$ )과 거주기간( $F=6.301, p=.000$ )에 따라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남학생(3.79)의 출신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여학생(3.64)보다 높았다.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20년 이상(3.90)이 가장 높았으며, 15~20년 미만(3.72), 10~15년 미만(3.67), 5~10년 미만(3.59)이 그 뒤를 이었고, 5년 미만(3.52)이 가장 낮았다. 이를 통해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별로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é 방법을 사용하여 사후 다중비교를 한 결과, 5년 미만과 20년 이상, 5~10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각각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년( $F=1.277, p=.281$ )과 도시규모( $F=.451, p=.772$ )별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차이가 없었다.

〈표 8〉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출신지역 전반적 관심도 차이

	집단별 평균					F	유의 확률	Scheffé
	남성(N=433)		여성(N=544)					
성별	3.79		3.64			7.968**	.005	-
학년	1학년(N=344)	2학년(N=297)	3학년(N=180)	4학년(N=156)				
	3.75	3.69	3.76	3.60		1.277	.281	-
도시 규모	농촌중심도시(N=7)	중소도시(N=253)	대도시(N=317)	거대도시(N=195)	초거대도시(N=167)			
	3.57	3.70	3.68	3.78	3.71	.451	.772	-
거주 기간	5년 미만 <sup>a</sup> (N=146)	5~10년미만 <sup>b</sup> (N=163)	10~15년미만 <sup>c</sup> (N=183)	15~20년미만 <sup>d</sup> (N=211)	20년 이상 <sup>e</sup> (N=274)			
	3.52	3.59	3.67	3.72	3.90	6.301***	.000	a<e b<e

\*\* $p < .01$ , \*\*\* $p < .001$

3) 출신지역에 대한 만족도 분석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표 9)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3.82)는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9〉 출신지역에 대한 만족도

내용		평균	표준편차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N=970)		3.82	.762
출신지역에 대한 구체적 만족도(N=970)	거주지로서 적응하기 좋다	3.87	.829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다	3.73	.896
	주거환경으로 적당하다	3.84	.801
	지역 주민들은 친절한 편이다	3.66	.840
	치안이 안전하다	3.59	.970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3.62	.991
	교육여건이 좋은 편이다	3.63	.937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3.84	.969
	자연환경이 좋은 편이다	3.72	.917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성별, 학년, 도시규모, 거주기간별로 분석한 결과(표 10)에 서는, 성별(F=16.584, p=.000)과 도시규모(F=3.977, p=.003), 거주기간(F=8.202, p=.000)에 따라 출신지역의 전반적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난 반면에, 학년(F=2.140, p=.094)간에는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3.93)의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여학생(3.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에 따른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농촌중심도시(4.00)가 가장 높았으며, 거 대도시(3.94), 초거대도시(3.93), 대도시(3.79), 중소도시(3.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중심도 시를 제외하고는 도시규모가 클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도시규모별로 출신지역 만족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 다중비교를 한 결과, 중소도시와 거대도시, 중소도시와 초거대도시가 모두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20년 이상(4.01)이 가장 높았으며, 10~15년 미만(3.82), 15~20년 미만 (3.81), 5~10년 미만(3.76) 순으로 나타났으며, 5년 미만(3.58)이 가장 낮았다. 대체로 출신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별로 출신지역 전반적인 만족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 다중비교를 한 결과, 5년 미 만과 20년 이상, 5~10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각각 p<0.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0〉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차이

	집단별 평균					F값	유의 확률	Scheffé
	남성(N=429)		여성(N=541)					
성별	3.93		3.74			16.584***	.000	-
학년	1학년 (N=342)	2학년 (N=293)	3학년 (N=179)	4학년 (N=156)		2.140	.094	-
	3.82	3.81	3.93	3.72				
도시 규모	농촌중심도시a (N=7)	중소도시b (N=250)	대도시c (N=315)	거대도시d (N=194)	초거대도시e (N=166)	3.977**	.003	b<d b<e
	4.00	3.69	3.79	3.94	3.93			
거주 기간	5년 미만a (N=145)	5~10년미만b (N=163)	10~15년미만c (N=183)	15~20년미만d (N=208)	20년 이상e (N=271)	8.202***	.000	a<e b<e
	3.58	3.76	3.82	3.81	4.01			

\*\*p<.01, \*\*\*p<.001

#### 4)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 분석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3.29)는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 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표 11).

〈표 11〉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

	평균	표준편차
출신지역 정보습득(N=977)	3.29	.747

지역정체성 수준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12)에서는, 성별(F=10.356, p=.001)과 거주기간(F=3.143, p=.014)에 따라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학년(F=.480, p=.696)과 도시규모(F=1.821, p=.123)간에는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남학생은 출신지역 정보습득정도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의 경우, 20년 이상(3.36), 15~20년 미만(3.30), 10~15년 미만(3.28), 5~10년 미만(3.33), 5년 미만(3.10)으로 출신지역의 거주기간이 대체로 오래될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가 높았다. 거주기간별로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다중비교를 한 결과, 5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출신지역 정보습득정도 차이

	집단별 평균					F	유의 확률	Scheffé
	남성(N=433)		여성(N=544)					
성별	3.37		3.22			10.356**	.001	-
학년	1학년(N=344)	2학년(N=297)	3학년(N=180)	4학년(N=156)		.480	.696	-
	3.32	3.28	3.24	3.28				
도시 규모	농촌중심도시a(N=7)	중소도시b(N=253)	대도시c(N=317)	거대도시d(N=195)	초거대도시e(N=167)	1.821	.123	-
	3.04	3.25	3.27	3.41	3.25			
거주 기간	5년 미만a(N=146)	5~10년미만b(N=163)	10~15년미만c(N=184)	15~20년미만d(N=211)	20년 이상e(N=274)	3.143**	.014	a<e
	3.10	3.33	3.28	3.30	3.36			

\*\*p<.01, \*\*\*p<.001

5) 출신지역에 대한 정체성 수준 분석

출신지역에 대한 정체성(3.41)은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정체성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표 13).

〈표 13〉 출신지역에 대한 정체성 수준

	평균	표준편차
지역정체성(N=977)	3.41	.680



지역정체성 수준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표 14)에서는, 성별(F=37.785, p=.000), 도시규모(F=3.472, p=.008), 거주기간(F=3.462, p=.008)에 따라 출신지역정체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학년(F=1.420, p=.235)간에는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차이가 없었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지역정체성 수준이 여학생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의 경우, 농촌중심도시(3.91)의 지역정체성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정체성 수준이 낮았다. 도시규모별로 출신지역에 대한 정체성 수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 다중비교를 한 결과, 대도시와 초거대도시 간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기간의 경우, 20년 이상(3.70), 15~20년 미만(3.44), 10~15년 미만(3.36), 5~10년 미만(3.37), 5년 미만(3.29)으로 출신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정체성 수준이 높았다. 거주기간별로 출신지역에 대한 정체성 수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다중비교를 한 결과, 5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4〉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출신지역정체성 수준 차이

	집단별 평균					F값	유의 확률	Scheffé
	남성(N=434)		여성(N=543)					
성별	3.56		3.30			37.785***	.000	-
학년	1학년 (N=345)	2학년 (N=296)	3학년 (N=180)	4학년 (N=156)		1.420	.235	-
	3.43	3.36	3.49	3.39				
도시 규모	농촌중심도시a (N=7)	중소도시b (N=252)	대도시c (N=317)	거대도시d (N=195)	초거대도시e (N=168)	3.472**	.008	c<e
	3.91	3.39	3.47	3.45	3.27			
거주 기간	5년 미만a (N=145)	5~10년미만b (N=163)	10~15년미만c (N=184)	15~20년미만d (N=211)	20년 이상e (N=274)	3.462**	.008	a<e
	3.29	3.37	3.36	3.44	3.52			

\*\*p<.01, \*\*\*p<.001

#### 4. 지역정체성 영향요인 분석 결과

##### 1) 상관관계 분석

학생들의 지역정체성과 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는 <표 15>와 같다. 지역정체성과 천안학 만족도, 출신지역 이해도, 출신지역 관심도, 출신지역 만족도, 출신지역 정보습득정도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역정체성의 영향 요인들이 지역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예상할 수 있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는 .15에서 .53으로 .80이상인 변수가 없어 예측변수들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표 15〉 측정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및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천안학 만족도	3.75	.76					
2) 출신지역이해도	3.25	.72	.145***				
3) 출신지역관심도	3.44	.67	.377***	.362***			
4) 출신지역만족도	3.73	.66	.332***	.291***	.533***		
5) 출신지역정보습득	3.29	.75	.271***	.450***	.463***	.376***	
6) 지역정체성	3.41	.68	.420***	.392***	.762***	.620***	.495***

\*\*\* $p < .001$

2) 지역정체성 영향요인 분석

학생들의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천안학 수업 만족도, 출신지역 이해도, 출신지역 관심도, 출신지역 만족도, 출신지역 정보습득정도를 선정하여 이들 5개 변수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들 5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지역정체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한 결과, 천안학 수업 만족도, 출신지역 이해도, 출신지역 관심도, 출신지역 만족도, 출신지역 정보습득정도 모두가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이들 변수가 학생들의 지역정체성을 총 6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향력이 큰 변수는 출신지역 관심도( $\beta = .517, p < .001$ )였으며, 출신지역 만족도( $\beta = .252, p < .001$ ), 출신지역 정보습득( $\beta = .104, p < .001$ ), 천안학 수업만족도( $\beta = .103, p < .001$ ), 출신지역 이해도( $\beta = .065, p < .01$ )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따라서 <표 16>의 회귀모델의 결과에서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발생하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16〉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969)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beta$			공차	VIF
(상수)	-.208	.091		-2.284	.023		
출신지역관심도	.525	.024	.517	21.530***	.000	.593	1.686
출신지역만족도	.257	.023	.252	11.178***	.000	.674	1.484
출신지역정보습득	.094	.020	.104	4.606***	.000	.678	1.475
천안학수업만족도	.092	.018	.103	5.050***	.000	.825	1.213
출신지역이해도	.061	.020	.065	3.072**	.002	.767	1.304

F=391.032, df=5,  $p < .001$ , adj  $R^2 = .668, R^2 = .670$

\*\* $p < .01$ , \*\*\* $p < .001$

## V. 결론 및 제언

###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세계화 시대에 지역이 삶의 장으로 등장하고 경제, 문화, 사회활동의 주요단위로 인식되면서 각 지역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립이 지역발전의 핵심적 요소이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지역학이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열악해져가고 있는 지역의 발전전략을 위한 기초로서 지역 및 지역주민들의 특성과 현재, 그리고 미래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또한 동시에 중앙 집중의 폐해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주체가 되어 바꾸어 나가려는 인식 등을 위한 그 이론적 토대를 지역학이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 정체성과 지역학에 초점을 두어 지역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출신지역에 대한 인식 및 지역학 수강과 관련하여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았다. 지역의 축제, 자연환경과 문화 등을 알고 있는 정도가 높았던 반면에, 지역의 역사·전통·문화유산과 인명인물, 산업·경제·정치·행정 부문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거주기간에 따라 출신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게 나타난 반면에, 학년과 도시규모에 따른 이해도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거주기간의 경우 대체로 출신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았다.

둘째,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관심도에 있어 출신지역의 축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 토속음식, 산업·경제·정치·행정, 교육, 자연환경, 인명인물, 역사·전통·문화유산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거주기간에 따라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가 달랐던 반면, 학년과 도시규모에 따른 관심도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았다.

셋째,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보다 조금 높았다. 성별, 도시규모, 거주기간에 따라 출신지역의 전반적 만족도가 달랐지만 학년에 따른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의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도시규모의 경우, 농촌중심도시가 가장 높았으며, 거대도시, 초거대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나타나 농촌중심도시를 제외하고는 도시규모가 클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의 경우 대체로 출신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았다.

넷째,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았다. 성별과 거주기간에 따라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학년과 도시규모 간에는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에 차이가 없었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출신지역 정보습득정

도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거주기간의 경우 출신지역의 거주기간이 대체로 오래될수록 출신지역에 대한 정보습득정도가 높았다.

다섯째, 출신지역에 대한 정체성은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정체성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 도시규모, 거주기간에 따라 출신지역정체성에 차이가 있었으나, 학년별로는 출신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지역정체성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도시규모의 경우에는 농촌중심도시의 지역정체성 수준이 가장 높았고,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정체성 수준이 낮았다. 거주기간의 경우 출신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역정체성 수준이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정보습득정도, 정체성 수준 모두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아 학생들이 출신지역에 대한 인식 정도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거주기간이 대체로 길수록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정보습득정도, 정체성 수준이 모두 높은 반면, 학년별로는 이러한 인식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도시규모의 경우 출신지역 만족도와 정체성 수준에서만 차이가 있어 결과 해석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신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농촌중심도시가 가장 높았으며, 농촌중심도시를 제외하고는 도시규모가 클수록 지역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정체성의 경우에도 농촌중심도시가 가장 높았으나, 대체로 도시규모가 클수록 정체성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지역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큼을 예상할 수 있지만, 공동체 의식 및 뿌리 의식의 기반은 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농촌중심도시는 대도시가 갖는 생활의 편리함, 훌륭한 교육여건, 잘 갖춰진 사회기반시설 등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전통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진 토착민 중심의 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환경이라든지 지역구성원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등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 또는 만족도가 높아 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타 도시에 비해 농촌중심도시 출신의 학생 수가 소수이어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대체로 도시규모가 클수록 정체성 수준이 낮아 산업화되고 이주민들이 많은 도시 지역에 대해 지역학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도시가 대도시보다 지역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자 하는 노력들과 해당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주민에 지역을 보다 이해시키고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지역의 정체성 제고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한 결과로는 천안학 수업 만족도, 출신지역 이해도, 출신지역 관심도, 출신지역 만족도, 출신지역 정보습득정도 등의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출신지역 관심도였으며, 출신지역 만족도, 출신지역 정보습득정도, 천안학 수업 만족도, 출신지역 이해도 순으로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출신지역에 대한 정체성은 출신지역 관심도와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지역정체성은 지역사회의 노력에 의해 언제든지 창조되고 재구성될 수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 중에서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도 지역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존재라는 주장(Taylor & Spencer, 2004)과 주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Baldwin, 2004)이라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체성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내용들이 결합되고 없어지고 변화되며 재조직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기관, 지역연구단체,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지역언론 등이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천안학 만족도, 지역정보습득 요인들이 모두 지역 구성원들의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지역정체성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지역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영원, 2010)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지역학의 중요한 목표인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주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 주체는 시민, 초중고학생, 대학생, 기업종사자들 매우 다양할 것이며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역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발전을 도모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이 연구는 지역학과 지역정체성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고찰하고 이전에 논의되었던 지역정체성 영향요인이 아닌 지역학의 역할을 지역정체성 관점에서 검증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지역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있어 지역학의 역할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이므로 앞으로 지역학 강좌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지역학과와의 관계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연구와 여러 영향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 지역학 강좌 효과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천안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학 수강자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영향요인들이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개념들과의 관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연구들의 문제점으로써 시차를 두지 않은 횡단연구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그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수강 전후의 지역정체성 인식을 조사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탁. (2011). 지역정체성과 팀정체성, 재관람의도의 구조적 관계: 프로축구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4): 404-413.
- 김대래. (2003). 부산학 정립의 방향과 과제. 「부산학총서」, 1: 67-69.
- 김용웅·차미숙·강현수. (2003). 「지역발전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영일. (2012). 지역학으로서 부산학과 시민의식.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7(1): 185-222.
- 김주원. (2003). 지방자치단체 정체성 확립방안-원주 생명문화·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209-235.
- 박경용. (2004). 지역개발과 지역정체성 -청산도~삼천포간 연륙교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2(1): 278-312.
- 박근석. (2003). 「사회구조요인과 사회정체성에 따른 상대박탈 경험 및 집합 행동: 영호남인 지역 간 갈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재권·김선명. (2014). 「삶이 평안한 천안학」. 서울: 살림터.
- 유병린·황기원. (1972). 「도시문화환경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유팔무. (2000). 춘천사람의 성격과 정체성. 춘천학세미나발표논문.
- 윤순갑·김명하. (2007). 대구·경북지역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동서사상」, 3: 33-64.
- 이영민. (1999).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2): 1-14.
- 이영원. (2010).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정체성과 지역 만족도에 대한 연구: 전주, 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2): 251-277.
- 이윤희. (2002). 인천 시민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연구. 「인천학연구」, 1: 9-32.
- 이정훈. (2008). 연성 지역개발의 주요 수단으로서 장소브랜딩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3(6): 873-893.
- 임병조. (2009).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홍성신문에 투영된 '內浦' 만들기. 「대한지리학회지」, 44(1): 89-104.
- 정근식. (1997). 「지역정체성과 도시상징연구를 위하여, 지역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전남: 전남대학교 출판부.
- 최병목. (1999). 인천시민의 특성별 지역정체성 비교. 「한국인구학」, 22(1): 93-121.
- 허남욱. (2011).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의 역할과 방향 모색: 지역학으로서의 한문학, 연구 범위와 전망. 「한문고전연구」, 22(0): 7-26.
- 허중욱. (2011). 관광현상과 지역의 정체성과의 관계. 「관광연구저널」, 25(4): 209-223.
- Baldwin, E., Longhurst, B., McCracken, S., Ogborn, M., & Smith, G. (2004). *Introducing Cultural Studies*. Harlow: Pearson Education.
- Buckner, J. C. (1988).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eighborhood cohe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 771-791.

- Bulmer, M. (1985). The rejuvenation of community studies? Neighbors, networks and policy. *The Sociological Review*, 33: 430-448.
- Campion, A. & Fine, G. A. (1998). Main street on main street: community identity and the reputation of Sinclair Lewi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9(1): 79-99.
- Crocker, J. & Quinn, D. M. (2004).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devalued identities, in Brewer, M. B. and Hewstone, M.(ed.), *Self and Social Identity*, Malden: Blackwell.
- Ellemers, N., De Gilder, D. & Van den Heuvel, H. (1998). Career-oriented versus team-oriented commitment and behavior at wor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 717-730.
- Hughey, J. B. & Bardo, J. W. (1984). The structure of community satisfaction in a southeastern American c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3: 91-99.
- Puddifoot, J. E. (1995). Dimensions of community identity.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5: 357-370.
- \_\_\_\_\_. (1996). Some initial considerations in the measurement of community ident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327-336.
- \_\_\_\_\_. (2003). Exploring “personal” and “shared” sense of community identity in Durham city, Englan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1): 87-106.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s, In W. G. Austin and S.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Brooks-Cole, Monterey, California, 33-47.
- Taylor, G. & Spencer, S.(ed.). (2004). *Social Identities: Multidisciplinary Approach*, Oxon: Routledge.
- Woodward, K. (2002). Concepts of identity and difference, in Woodward, K.(ed.), *Identity and Difference*, London: Sage Publication.

심재권(沈載權): 中國南京師範大學에서 문학박사와 충남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나사렛대학교 비서행정학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지역학, 행정사, 고문서, 비서학, 인사행정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비서학 관련 전공 선택 우선순위에 관한 영향 요인분석”(2013), “朝鮮과 明의 실무적 외교문서 咨文 분석”(2012), “조선 정조시대 국왕비서조직인 승정원의 인사운영, 업무 및 근무실태 분석”(2009), “국왕문서 비답의 연구”(2008), “근무평정의 공정성수용 인식이 하위직 공무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2007) 등이 있다(jksim@kornu.ac.kr).

황정희(黃正熹):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논문: 조직신뢰와 상사신뢰의 형성과 결과 프로세스), 현재 백석예술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인사관리, 조직행동, 인적자원개발, 자치행정 등이며, 주요논문으로는 “교육훈련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2013), “기업환경변화와 인적자원관리 트렌트”(2012), “HRM 관점에서 본 비서직 채용 실태”(2011) 등이 있다(dearsyh@hanmail.net).

Abstract

## An Study on Regional 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the Area Studies Students

Shim, Jae Kwon  
Hwang, Jung Hee

Because the region appears as stage of life and is realized as major unit of economy, culture, and society activities in globalization, the clear realization and establishment on regional identity are the important elements and they are feasible by the Area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university students' realization on their region and the relationship among awareness of region of birth, class of area studies and regional identity. As a result of analysis, the extent of realization on their region was not high and 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female students. The longer the residence period, the higher the region understanding, region interest, region satisfaction, information acquisition of region, and regional identity. In satisfaction on their region the larger city size, the higher the extent of satisfaction except rural community. The rural community was the highest in regional identity. But mostly the higher city size, the lower the level of region identity. In addition, all of influence factors on regional identity had a effect on it significantly. The most influencing factor was the region interest and was followed with region satisfaction, information provision on region, Area studies satisfaction, region understanding.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examin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ea studies and regional identity for the first time and the role of Area studies in prospective of regional identity.

Keywords: region identity, Area studies, satisfaction on Area studies, Cheonan studies.